

宗 說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해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권씨기원(權氏紀元) 1089년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새로워지려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고 했다.

지난날의 양공과 실패를 씻어내고 매일 매일의 삶을 새롭게 다짐해서 저마다 승리하는 한해, 보람이 남는 한해, 영광의 한해가 되도록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려는 새 마음, 새 정신이 항상 뒤따라도록 없이는 자기 관리가 필수다.

생각구조에는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가 항상 대립각을 세우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삶의 스트레스나 고통이 적으며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성공률이 높다.

어두운 생각보다는 밝고 맑은 사고를 많이 하란 뜻이 담겼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과 문중이라는 아름다운 인연에 묶인다. 출생신고를 하면 법이라는 사회 제도에 묶이고... 묶이는 게 싫다. 그런데도 인간은 뭔가 묶이면서 살아간다.

지난 12월 6일 중정 안동 시조묘소엔 유례없이 많은 권문의 후손들이 찾았다.

영하 5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5백여 명의 후손들이 안동을 찾아 추향(秋享)에 참석했다. 시조묘소(初獻官 權聯錫)와 낭중공 단소(初獻官 權赫根 慶州雲谷書院委員長)앞이 참제원들로 발 디딜 공간이 없었다. 늘 썰렁했던 지난날의 분위기와는 달리 백만 거족다운 면모를 오랜만에 보였다.

신임 권해옥 대종회 회장께서 늘 말씀하셨던 숭조이념(崇祖理念)이 살아난 현상이었다. 전날 밤 능동재사에서 가진 대당회에서도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능동재사주변 정비사업 및 안동 권문의 빛나는 업적을 후손들에게 보여

줄 역사문화 기념관(案)에 대한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완공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계획대로 완성이 되면 안동 권문은 시조 이후 최대의 역사가 되고 천추만대에 걸쳐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남을 중요한 안동권문의 정신문화 자산이 된다.

오랜만에 종원들의 밝은 기운이 솟아나는 추향제 분위기였다.

그러나 풀어야 할 중사도 만만치 않다. 능동장학회는 권웅렬 고문께서 장학금으로 시가 2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증하려 했으나 권정달이사장이 능동장학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득이 절차상의 문제로 부동산 등기가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능동장학회는 일원화가 필요하다. 행정적 뒷받침을 할 능동장학회가 대종회 산하기관(정관 7조 8항)이라면 지금처럼 대종회 회장과 이사장이 분리되는 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장학회는 훌륭한 후손들의 학업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재단으로 새해엔 거듭나고 그 관리자가 누구이던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1월호부터 제호를 바꾼 ‘安東權氏宗報’ 역시 마음 같아서는 1만 명 독자시대를 열었으면 싶다. 종보 1만 명 독자시대가 열리면 문중과 100만 족친 간의 소통이 쉽게 이루어져 송모(崇慕)정신을 더 높일 수 있다. 100 대 지친(至親) 즉 50촌을 넘지 않아 친족의 의미가 더 깊다. 그 족친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소통시키며 보학의 이념을 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종보 불리기가 그만큼 중요 하다.

무술년 새해엔 근래 발생된 문제들은 세월의 뒤안길로 보내고 권해옥 회장을 중심으로 100만 족친들의 여망을 담은 미래지향적 대종회로 가도록 다 같이 원력을 모았으면 한다.

부정공파종회 정기총회 및 추향제 봉행

2017년 11월 5일(음 9월 17) 안동시와 룡면 능곡재사에서 권기승 종손 등 80여명의 부정공 파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공파종회 정기총회가 권세영 총무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권기승 종손은 “정성을 다해서 효의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원선출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권병윤 회장이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권기선, 권영수, 권용한, 권오흥, 권석원, 권동순, 권영도, 권영인, 권세동, 권영삼, 권기중, 권중달, 권용운, 권두찬, 권성덕, 권영중, 권중웅 이사 17명이 선임되었다. 권병윤 신임 회장은 신임사에서 “여러 파족 족친들께서 내내 숭조보본(崇祖報本)과 애족사상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다음날 신임 회장단과 모든 참제원은 안동권씨 부정공 단소에서 추향제를 봉행했다. 초헌관 권기승, 아헌관 권용주, 종헌관 안국환, 진설 권영중, 권오기, 축 권오기, 찬자 권득규, 봉향 권오진, 권병남, 봉노 기영, 문수, 봉작 순원, 영한, 전작 중을, 종구, 사준 기중, 오서 등으로 각각 분정했다.

자손만대에 이어질 백만 족친의 ‘정신역사관’ 건립

정유년(丁酉年) 추향(秋享) 대당회(大堂會)가 12월 5일(음력 10월 18일) 오후 7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 고문단을 비롯하여 수입(首任) 및 제례위원(祭禮委員), 회장단, 지역종친회장, 이사, 중무위원, 청장년회장단 등 전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오익 대종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묘소망배(望拜), 상음례(相捐禮), 도유사(都有司) 인사, 대종회장 인사,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권해옥(權海玉) 대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도 좋고 방이 협소한데도 참제원이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한 후 “대종회를 이끌어 가자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안동권씨종보가 현재 500호를 넘었으며 대종회 재정자립을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종보를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족친들은 종보에 애정을 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고 보급이 잘 되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권승옥(權承錫) 시조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날씨도 추운데 원근에서 많은 참제원(參 祭員)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며 “역대 대종회장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권해옥 회장은 무언가 크게 일하실 것 같다”며 박수로 힘을 보태라고 유도했다. 권혁근(權赫根) 낭중



공 수입도 인사말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며 짧막하게 인사했다. 이어서 권오익 사무국장은 지난 4월 5일 시조 및 낭중공 두곳에 춘향제(春享祭)를 봉행하는 등 7가지의 중무(宗務)와 춘향제 때의 결산보고 및 제수성금 내역을 각각 보고했다.

권인탑(權仁塔)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은 기타 토의에서 안동권씨의 숙원사업인 가정 “능동재사 주변 정비사업”을 발의하면서 조상이 남긴 빛나는 정신을 이어가는 도량으로 활용하고자 안동권문이 일직 단결하여 전국적 모금운동과 지역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자기의 근분을 찾는 뿌리공원 조성을 통해 후손들이 찾고 머무르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100만 성손(姓孫)들이 찾는 시조 묘소를 통해 권문(權門)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관상상품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좌윤공파 추향제 봉행

2017년 12월 1일(음 10월 14일) 좌윤공파 추향제가 100여명의 파친들이 참제한 가운데 연미원 오이동재사에서 봉행되었다. 전날 사전회의에서는 권혁준(36세) 도유사께서 “좌윤공파 파친 여러분은 건강과 행운은 물론이고 조상을 숭상하고 애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해 큰 박수를 받았다. 권태원 관리위원장은 인사말로 “참석하신 여러분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숭조보본정신과 애족하는 데 분발하자”고 말해 족친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권혁대 등 세분의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권오기 총무의 수지결산보고가 이어졌다. 추향제는 좌윤공파 14세 고려증문지후증가선선대부의조 참관영가군휘취지묘(연미원 오이동), 15



세 고려문하시중증정대부의정부좌참찬시회경공공휘영일지묘(연미원 오이동), 16세 대광보국송록대부의정부좌의정감찰시문정공권선생휘취정지묘(안동시 정하동)에서 봉행되었다. 특히 권오신 편집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을 함께 했다.

추밀공파 양정공 권언 부조묘 준공식 거행

양정공 권언의 부조묘 준공식이 12월 5일 충주에서 거행되었다. 대종회 권해옥 회장, 권태호 총청북도 종친회장, 양정공 종친회 권혁봉 회장, 김찬군 종친회 권태복 회장, 권오협 충주종친회장, 권광택 대종회 부회장, 이웃 주민과 여러 족친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오협 충주종친회장은 사회를 보면서 내의 귀빈들에게 양정공 사우 준공식에 대한 간단한 경과보고와 함께 양정공 권언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권해옥 회장은 축사에서 “양정공 어른께서는 무라이 뛰어난 조선초기 무과에 1등으로 합격하여 국난이 임할 때마다 권도를 살피시고 승승장구하여 계유



정난 공신록에 이름은 물론 의정부 좌찬성에 이르시고 복성군의 군호까지 받았던 어른”이라고 언급하며, “병으로 졸하니 세조께서 하루 동안 조화를 폐”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복야공파 승정공 평리공 문탄공 추향제 봉행

초헌관 권영익, 아헌관 권경모, 종헌관 권영국, 축관 권동술, 김현 10월 19일(음 10월 2일) 오전 80여 참제원이 참석하여 복야부군의 파조 제향 등 6위의 선조님들의 추향을 정중하게 봉행했다. (기사제공 권혁세)



부산부녀회 추향제 참제

부산종친회는 시조 추향제에 대형버스를 이용해 46명이 참석했다. 특히 부산종친회 부녀회 회원들의 참석은 매우 특별했다. 사대부가의 유림들이 도포와 유건을 입고 시조의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안동권문의 딸네들과 며느리들이 예쁜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참제한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다. 권영호 부산종친회장은 부녀회원들 속에서 함박웃음을 웃으며 부산부녀회는 전국에서 유일한 부녀회라고 자랑하면서 현재 며느리와 딸네들 50여명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 더불어 다른 지역도 부산처럼 부녀회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 회장과 권영희 총무는 부산부녀회는 매년 시조 추향제에 잊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복야공파 판서공 추향제

2017년 10월 24일(음 10월 7일) 예천군 지보면 화봉재사에서 안동권씨 복야공파 15세 판서공 부 계응과 상주목사였던 아들 수에 대한 추향제가 후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 혁취, 아헌관 우인, 종헌관 영조, 집례 영육, 독축 오성으로 각각 분정하여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추향제 이모저모



2세 낭중공 추향제



영주시 종친회



서울청장년회



시조 태사공 초헌관 권승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아들 권성동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권해옥회장(왼쪽에서 네 번째), 권영창 전영주시장(다섯 번째), 권오을 전의원(여섯 번째)



분정하는 모습



분정을 마치고 초헌관 등 참제원들에게 공개



시조 태사공 묘소에 오르기 직전 도열해 있는 참제원들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100만 족친의 만사형통(萬事亨通)을 기원합니다.

안동권씨 지역종친회장단 협의회 명단

회 장	권동술(합천)
고 문	권길상(부산)
부 회 장	권혁길(강릉), 권영호(부산), 권순호(대구), 권주연(안동), 권박원(대전), 권충화(광주), 권오영(울산), 권병국(상주)
감 사	권승구(마포), 권육만(예산)
총 무	권석호(합천)



회 장

권동술(합천)

권경관 금산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병국 상주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봉섭 단양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순중 통영회장

권순호 대구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영덕 영천회장
권영모 청송회장
권영목 중앙회장
권영백 창녕회장

권영복 김포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영복 과산회장
권영삼 여주회장
권영석 예천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중 보은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영학 분당회장
권영호 의성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오길 경주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오영 강릉회장
권오영 울산회장
권오영 봉화회장
권오택 제주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오흥 경산회장
권용근 전주완주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진걸 안양회장
권중열 진주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주연 안동회장
권준원 연무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중택 예산회장
권진수 인천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천문 충구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태복 금천구회장

권태연 제천회장
권태형 마창회장
권태호 충북도협의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희량 연천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